



생명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릴 逆간척 아시나요?

김종술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1960년대 경제개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시작된 간척지가 썩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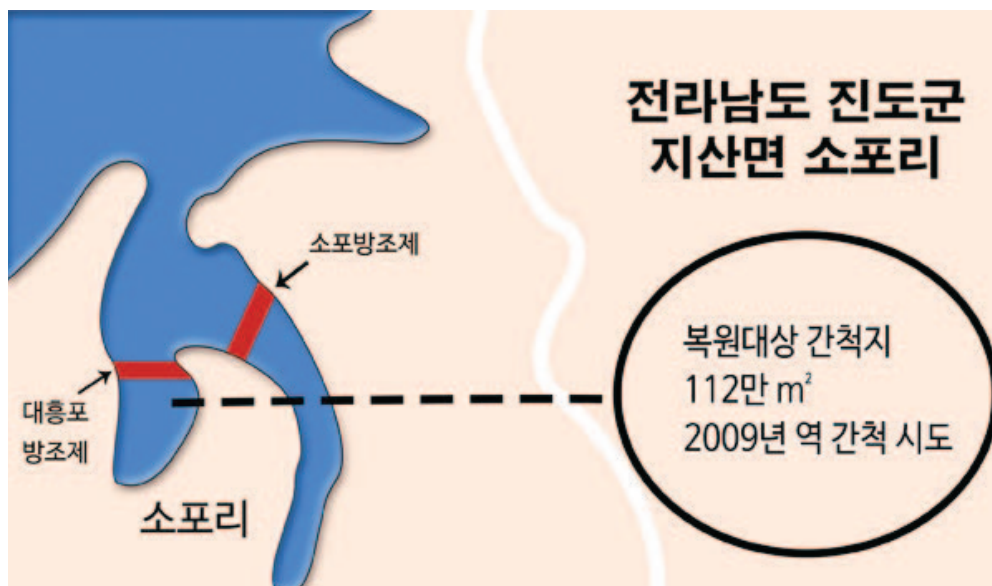


〈사진1〉 전라남도 증도는 간척을 포기하고 갯벌을 살려내면서 전국 최초로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증도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 모습(CMB 제공)

해양 동물의 보고이자, 바다 생태계의 근원지인 갯벌은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 강 유역과 더불어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국토로 보리 고개 시절 갯벌을 메워서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사업은 인간승라이자 국토 대개조였다.

세계적인 칠새 도래지로 알려진 충남 천수만도 1979년 간척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성은 과거가 되어 버렸다. 30년이 지난 지금 수질 등급은 6등급으로 하향하고 축산 분뇨가 유입되면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간척] 보리 고개 시절 먹고 살기 위해



〈그림 1〉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갯벌은 지난 1977년 대흥포방조제 공사로 112만㎡(34만평)의 간척지가 만들어졌다. 2009년 주민들의 주도로 역간척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의 벽을 넘지 못 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의 역사는 꽤 긴 편이다. 1248년 고려가 몽고와 항전을 벌이던 청전강 하구의 갈대섬에 제방을 축조해 농지를 조성하여 군량미를 조달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1961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시작된 간척은 시화, 화옹, 서산에서 호남의 영산강까지 현재 우리나라 간척지의 총 면적은 13만 510ha로, 국내 경지면적의 9%에 이른다. 여의도의 면적의 150배 가량의 간척지가 생겨나면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식량 자급을 높여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수조원의 돈이 투입된 간척 사업이 과연 애초의 요구와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 충남은 국가관리 20개, 지방관리 250개, 미지정 민간관리 9개 등 충남도에는 총 279개의 방조제가 있다. 방조제 길이만 177km 이른다.

갯벌을 없애고 간척지를 조성했지만 농업용지로도 산업용지로도 제구실을 못하는 데다 육상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환경피해까지 가속화 되고 있다. 홍성 보령을 일컫는 홍보지구는 810ha의 갯벌을 막아 방조제와 양수장, 배수갑문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취지로 26년간 4833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간척지이다.

[파괴된 생태계] 축산 분뇨 가득한 수질 6등급



〈사진 2〉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천수만 상류에서 흘러든 축산 분뇨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김중술 제공).

하지만 완공한지 12년이 지났지만 상류 축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을 못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는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천 정화사업에 돈을 들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업용수의 사용을 못하면서 농사는 물론 방조제 안쪽 8100ha의 갯벌에 살던 수산생물마저 사라져 버렸다.

방조제가 건립되기 전에는 황금 어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어류

들이 잡히면서 어민들은 풍족했고 주변 상인들의 장사도 잘 되었지만 바다가 주 수입원이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더욱 힘겨워졌다.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지역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으로 수문개방을 꿈꾸고 있다.

6등급으로 하향하고 축산 분뇨로 가득한 천수만이 심각한 오염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연안 및 하구생태계복원사업(일명 역(逆)간척사업)’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간척지를 원래의 갯벌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안 지사는 그동안 간척사업을 해양수질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1~2곳은 역간척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역간척사업 대상부지로는 서산 간월호·부남호(AB지구) 등이 검토 대상지다. 이 중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안 간척지의 육지화나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건설한 방조제에 수문을 달아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방조제를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해수를 유통해 양식장이나 습지를 조성 생태계를 간척사업 이전으로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방법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농지를 갯벌로 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복원 첫 삽] 지역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진 3〉 진도군 소포리 갯벌은 1977년 대홍포방조제 공사로 112만㎡(34만평)의 간척지가 만들어졌다. 의식 있는 주민들의 주도로 2009년 역간척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의 벽을 넘지 못 했다(충남발전연구원 제공)

2009년 우리나라도 역간척 사업의 첫 사례지가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소포리 갯벌이 지난 1977년 높이 6m, 길이 580m 대홍포방조제 공사로 생긴 112만㎡(34만평)의 농지를 32년 만에 허무는 역간척사업을 추진하다 당시 간척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뼈아픈 사례가 있다.

당시 1995년부터 시행된 WTO(국제무역기구) 체제하에서 '변해야 산다'는 화두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패러다임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손쉽게 갯벌 간척사업으로 토지(土地)를 만들어 부를 창조하겠다고 발부둥치는 가운데 당시 박연수 전 군수가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은 방조제를 허무는 역간척사업으로 소포리 일대의 농지를 갯벌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했었다.

지난 1월 19일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 정봉희 홍보팀장,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 충남도정신문 관계자 등과 동행하여 2009년 역간척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진도군 소포리를 찾아 역간척 추진에 앞장섰던 김병철 전 이장과 당시 간척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김병철 전 이장은 “보릿고개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농지는 간척 후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건강까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간척사업의 후유증을 알았다. 이후에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했지만 외국의 농산물은 밀려들어오고 벼농사 지어봐야 남는 것도 없던 시기에 환경도 되살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심 끝에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135가구 주민 340명 대부분이 논을 갯벌로 전환하는 역 간척에 찬성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었다”며 “간척 후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라도 역간척의 재추진을 불태우고 있다.

역간척에 반대한 주민도 만나 보았다. 여든이 넘는 어르신은 “손바닥만한 논 한 배미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지게와 리어카로 끼니까지 굶어가며 고생고생 하면서 피와 땀으로 만든 농지 때문에 쌀밥을 먹고 살수가 있었다. 그런데 (농지) 대금을 일시불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신탁해서 준다는데 마땅치가 않았다”며 “그리چه 한이 맺혀있던 그 땅을 역간척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보상으로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전문가] “설득과 협의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역간척은 지난 개발시대와 다른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충남은 역간척을 통한 생태복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충남도와 시·군 등이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갯벌의 가치를 담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4〉 강현수 원장과 허재영 교수 등은 진도군 소포리 대흥포방조제에서 갯벌을 바라보며 역간척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 제공)

허재영 교수는 “과거 어촌이었던 지역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농촌으로 변화된 경우, 연안복원(역간척)의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안복원을 계획하는 경우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여 상실감을 벌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의 생산성보다 복원된 갯벌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대체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충분한 토의와 설득이 진행된다면 현재 농업위주의 산업에서 염전 등을 포함한 어업으로의 전환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복원사업의 추진주체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급적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 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추진주체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안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원금(쌀 직불금제도), 시민사회의 참여(가령 내셔널 트러스트) 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로부터 복원된 갯벌은 토지공부상으로는 바다로 환원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합당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선진 사례] 하루 10만 명이 찾는 독일 랑어욱



〈사진 5〉 독일 랑어욱은 35종류의 철새들의 서식지로 바다 생태계가 잘 유지된 세계적인 갯벌로도 유명하다. 갯벌 해설가가 체험객들에게 갯벌 생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CMB제공)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독일에 역간척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인구 2천명의 작은 섬, ‘랑어욱’은 여름이면 하루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로 꼽히고 있다. 자연생태를 상품화 하는 랑어욱에는 자동차 출입 금지 지역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야만 하는 친환경 경생태지역이다.

갯벌은 35종류의 철새들의 서식지로 바다 생태계가 잘 유지된 세계적인 갯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랑어욱은 1923년 경, 간척사업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삭막한 간척지였다. 못 쓰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소를 키우려던 계획을 되돌려 1986년 간척 사업을 중단하면서 금지 법안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갯벌을 살리자는 바람이 불면서 역간척 프로젝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위적으로 간척지는 없애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각종 철새들이 찾게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역간척으로 생태가 복원되면서 주민들은 경제적인 생활뿐 아니라 삶도 윤택하게 변했다고 한다. 자동차가 없어서 소음 없고 공기가 좋아서 육지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갯벌이 주는 경제적 가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 닿았을까?, 간척지 보다는 갯벌을 보존한 지역이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가 대표적인 곳이다. 증도는 간척을 포기하고 갯벌을 살려내면서 전국 최초로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김 양식, 다양한 갯벌 생물을 이용한 경제효과 뿐 아니라 관광 수입도 높다고 한다.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 시대 화두가 된 만큼 연 3만 명이 넘게 관광객이 몰

려오면서 갯벌 체험 관광은 늘어났고 더불어 증도의 경제도 살아났다고 한다. 갯벌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까지 추진할 계획을 품으면서 희망으로 넘쳐난다고 한다. 갯벌이 가진 가치는 농지와 비교가 안 되다는 것이다.

[충남도] 넘어야 할 높은 벽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갯벌이 농지와 산업단지에 비해서 경제적 생태 경제적 측면에서 300배 가깝다는 전문가도 있다. 쌀이 수입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역간척으로 생태적 가치를 높여서 자연 상태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고 한다.

하지만 역간척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문제부터 사업으로 자연을 되살리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걱정이 가득했다.

토지 보상 문제와 물 이용 측면의 문제 등 주민과 이용자와 관계자, 사용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시작이 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요구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간척 프로젝트가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 희망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안겨줄 수 있는 해법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충청도가 추진 계획을 세운 역간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바다의 생태환경 복원을 염원하는 모범사례로서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사진6〉 세계 5대 습지로 국내외에 유명한 순천만은 연 간 탐방객이 300만 명이 이르고 있다. 순천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1일 관광객 수를 조절해야 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 제공